

전국 롤모델 된 광주 아동 돌봄서비스

북구·광산구 이용자 증가·만족도 높아 여성가족부 장관상 전국 227곳 평가...남구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 올려

광주시의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이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북구와 광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해마다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7개소를 대상으로 아이돌봄비 활동,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 서비스 점검(모니터링) 사후조치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

가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 북구, 광산구 서비스제공기관은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가 및 만족도, 예산집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구 서비스제공기관도 2년 연속 우수기관(상위 30% 이내)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숙련된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도에는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를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당초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비용의 15%-90% 지원했던 것을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90% 지원한다.

전순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광주시는 올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과 적극 협업해 부모의 양육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더욱 믿음직한 공공돌봄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관광공사 팸투어 양림선교여행 첫 선 1박2일 코스 선교성지 순례



광주관광공사가 마련한 종교문화힐링 여행상품 '광주 양림선교여행' 팸투어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가 종교문화힐링 여행상품인 '광주 양림선교여행' 팸투어를 운영한다. 1박 2일 코스로 개발된 여행상품은 선교사들과 기독교 1세대의 헌신과 땅이 베인 양림동 일대를 투어하고, 광주의 5·18 민주정신을 엿볼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또 광주만의 특색있는 전시, 공연, 먹거리를 접목해 이색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양림선교여행' 첫째날에는 광주에 최초로 기독교를 전파하고, 개화의 새 물결과 일제 치하에서 구국 운동의 계기를 마련했던 23인의 선교사가 묻혀있는 '양림동 선교사묘역'과 전남도 최초의 선교사 배유지 목사, 클레멘트 오언이 헌신한 '수피아여학교'를 포함한 양림동 선교지를 소개한다.

둘째 날은 5·18 자유공원 및 1913송정역시장 등을 방문해 의향 광주의 민주정신을 공유하고, 광주 7미(味) 중 하나인 송정리향토떡갈비를 맛보

는 여정이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은 "양림동 일대는 선교사들이 보급자리를 틀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지"라면서 "복음전도가 꽃이 피고 풍성한 선교 열매가 맺힌 양림동도 방문하시고, 광주의 맛과 멋을 함께 즐겨보시길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관광공사는 국내 성지순례 전문여행사인 돌봄여행사와 협력해 해당 여행상품의 팸투어를 마친 후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2024년 1월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무등산 생태축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한다

연말까지 4억6000만원 투입 수목 식재·휴식공간 등 조성

광주시 도심 속 무등산 생태축인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남구 방림근린공원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생태계복원사업은 대규모 공사 때 자연환경 또

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남구 방림근린공원은 무등산 생태축에 있으면서 도심 내부 생물서식처를 이어주는 산림형 생물서식처이자 도심 생태네트워크의 중요 공간이지만,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내에 있는 데다 무단 경작지 및 쓰레기방치 등으로 훼손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국비 4억 6000만원을 들

여 방림근린공원 일대 1만2387㎡를 수목식재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로 복원하고, 생태놀이·체험·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축 복원사업을 비롯한 총 10개 지역(25만5000㎡)에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도심 내 훼손·방치된 공간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적극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소방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서부소방서 강운정 '최우수상'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일 북구 충효동 무등산생태탐방원에서 제110회 광주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강운정 강사(서부소방서 소방교)를 최우수 강사(광주시장상)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김대명 강사(남부소방서 소방장)는 우수상, 김홍규 강사(동부소방서 소방교)는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

수 강사로 선정된 강운정 강사는 내년 소방청에서 개최하는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송성훈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소방안전강사들의 뛰어난 교육역량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67곳 안전점검

복지시설·키즈카페·캠핑장 등

광주시는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실내 놀이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키즈카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캠핑장 등 67개소다. 안전점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광주시, 자치구,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 장비 및 방화구획,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전선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설 등 유지관리 상태 ▲소방·전기 등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상태 전반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시설관리주체에 이달 말까지 보수·보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겨울철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사고예방 홍보, 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으로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표창

교통약자 배려·서비스 개선 호평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시(서울)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1위 기록이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를 규모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수단 및 기반시설(인프라), 환승체계 ▲대중교통 서비스 고급화, 이용 편의성 및 안정성 ▲대중교통

행정 및 정책 지원 ▲대중교통 이용률 등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1~2022년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광주시는 대중교통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개선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과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